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와병'과 북한체제의 미래

전현준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난 주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로 온 세계의 이목이 북한에 집중되었다. 현재까지도 김정일 위원장이 어떤 상태인가는 북한의 핵심측근 외에는 아무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북한내부의 '망' (Humint)과 첩보위성, 감청장비 등을 동원해서 김정일 위원장의 동태를 살핀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분명한 것은 김 위원장이 뭔가 신체적 고장이 난 것은 분명하다는 점이다. 비록 미국이나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김 위원장의 신변문제에 대해 정확한 언급을 삼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김 위원장이 와병중인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다만 그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첩보와 정보, 추측이 난무하기 때문에 명료하게 규정하기는 어렵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벌써 김정일 이후 체제에 대한 논의가 등장하고, 그것도 북한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추론이 난무함으로써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정보원 보호를 생명으로 아는 정보기관을 압박하여 모든 정보를 공개하게 함으로써 향후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을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다. 북한으로서는 이것을 십분 활용하여 갖가지 역정보를 흘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어떻든 기왕 김정일 와병설과 관련하여 북한체제의 미래 문제가 나왔으니 북한체제의 특성을 중심으로 몇 가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려 한다. 우선 북한체제의 특성은 '수령유일지배체제'이다. 수령은 신적 존재이고 수령의 권위는 김정일 위원장에 의해 계승되고 있다. 만일 누군가 수령의 권위에 도전하려 할 경우 그는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김정일 후계 문제를 김정일 허락 없이 논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김정일 수술 중에는 모두 권력엘리트들이 오히려 숨을 죽이고 더욱 조신하였을 것이다. 만일 누군가 후계와 관련된 언행을 했다면 향후 큰 곤욕을 치를 것이다.

다음으로 군부강경과가 득세했다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른 분석이다. 물론 김 위언장이 '선군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군의 위상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곧 김정일까지 넘을 수 있는 권력은 아니다. 김일성 시대

에도 1968년 청와대습격사건 등 군부가 너무 활개치는 바람에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웠던 적이 있기 때문에 군부는 3중 4중으로 견제 받고 있다. 그 결과 북한군부는 오로지 김정일의 명령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수령의 군대’가 되어 있다. 특히 북한군 실세들은 ‘정치군인’인 총정치국 소속들로서 김정일에게 절대충성하는 자들이다. 만에 하나 이들도 ‘반김정일음모’에 가담한다면 10만명에 이르는 최정예부대인 호위사령부소속 군인들로부터 ‘초토화’ 되는 화를 입을 것이다.

아울러 집단지도체제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수령절대체제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솔직히 우리 민족은 고조선시대 이래로 일제시대까지 거치면서 절대왕정에 익숙해져 왔다. 북한은 해방이후까지 민주주의의 맛을 보지 못하고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매몰되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북한에서는 한국전쟁이후 반대세력들은 모두 죽거나 월남함으로써 대안세력의 그림자도 없어지게 되었다. 특히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남북간 체제경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집단지도체제 등장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세습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그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한다. 북한체제의 특성이 ‘김일성왕조체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이비종교체제’의 면모도 내포되어 있다. 이 경우 자기 체제를 가장 잘 보위할 수 있는 자가 후계자가 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김정남을 비롯한 세 자식들은 아직 경험이 일천하거나 불건전한 행동으로 인해 ‘사제들’인 권력 엘리트들로부터 큰 불신을 받고 있다. 수령체제 보위, 경제난 해결, 미국으로부터 안전보장 획득 등 국가적 3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경험이 많은 김정일 매제인 장성택이나 군부의 김정일 핵심측근 정도일 것이다.

북한은 우리에게 ‘타도’ 대상이자 평화통일의 대상이다. 금번 김정일 와병설과 관련하여 우리가 유념할 것은 그들을 다름에 있어서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에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이기는 하지만 북한자체는 아니다. 북한 주민들이나 군부를 비롯한 엘리트 집단들은 김정일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가 죽는다고 해도 같이 ‘옥쇄’를 하기보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다. 그것이 ‘김정일의 유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김정일 유고시에도 북한체제는 지속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일와병설과 함께 북한붕괴대비를 해야 하고 유사시에는 한미연합군을 투입해서 이를 복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밀히가 아닌 공공연히 하는 것은 전략부재의 소치에 다름 아니다. 나아가 이러한 논리는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자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금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정보능력이 모두 노출되고 북한 급변사태 시 우리의 전략과 내심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 안타깝다.

마지막으로 첨언하고 싶은 것은 북한체제가 김정일 거취와 무관하게 그럭저럭 작동된다고 판단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북한급변사태에 대해서는 내밀히 준비하되 공개적으로는 하루빨리 남북관계를 복원하여 북한이 우리를 기피할 명분을 주지 않아야 한다. 이것은 향후 통일문제의 주도권과도 관계되는 중대사안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김정일 와병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다시한번 터득한 것은 북한문제가 ‘강건너 불’ 이 아닌 ‘바로 옆집’ 의 문제라는 사실이다